

설날 가정예배 모범

예수님과 같이

2026년 02월 17일

찬	송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같이
기	도		가족 중
말	씀	창세기 1장 1절 (구약 1쪽)	
설	교	하나님이 그러놓은 아름다운 2026년	가족 중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설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소망과 기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질문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첫째, 시작과 끝을 창조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선언은 단순히 하나님이 세상의 시작 버튼만 누르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특별히 원어 성경에서 ‘창조하시니라’는 단어는 이미 완료된 상태(완료형)를 의미합니다. 즉 창조란 시작과 끝을 모두 완성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26년의 시작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날까지, 더 나아가 우리 가족의 모든 인생 여정을 이미 완벽하게 계획하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2026년이라는 시간 속에 던져두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께서 창조하신 그 선한 계획대로 올 한 해와 우리의 평생을 친히 이끌어가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둘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일은 엄청난 일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결코 무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창조하다’라는 원어의 어원은 ‘가볍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진정한 고수가 힘을 쓰지 않는 것처럼 절대적인 능력의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가볍고 단순하게, 그러나 완벽하게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의 무거운 계획과 염려들을 내가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태산 같아 보이는 문제도 천지를 가볍게 지으신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 가정에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2026년과 우리 인생 전체를 창조하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과 같이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걱정과 근심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	눔	올 한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길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같이
기	도		다같이
찬	송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